

고속도로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에는 일반도로와는 다른 형태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합니다.

차 안에 남지 않기! 도로 위에 있지 않기!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



1 차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급브레이크, 핸들 급조작은 엄금!



펑크, 고장 등으로 차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을 피하고자 급히 핸들을 쥐는 것도 다중 추돌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2 비상등을 켜고 가변 도로에 차를 붙여 세운다



추돌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입니다. 가급적 갓길이나 비상 주차 지대에 차를 붙여 정차합니다.

3 신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정지 차량 표지를 차의 50m 후방에 설치하고, 동승자와 함께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여 대피하십시오. 차 안, 차의 앞뒤, 노상에 있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차에서 떨어져 있기 바랍니다.

4 트러블을 신고, 지시 기다리기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있다면 우선 119번에 신고하고, 이어서 110번으로 신고.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여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110번이나 비상전화, 또는 도로 긴급 다이얼 #9910에 신고하고, 렌터카 회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상전화 사용법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비상전화를 이용하십시오. 고속도로에 약 1km마다 (터널 안은 약 200m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 문을 연다

문을 열어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도로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2. 상황을 알린다

고장(故障), 사고(事故), 응급(救急), 화재(火災)를 뜻하는 버튼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없는 유형의 비상전화는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신고하는 위치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3. 지시를 기다린다

교통관리대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사진 제공: NEXCO 서일본

사고를 났다면

110 (경찰)



부상자가 있거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면

119 (구급차, 소방차)



고속도로에서의 트러블

0120-924863 (NEXCO 서일본)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경찰과 렌터카 사고 대응

창구로 연락바랍니다.

그대로 계속 운전하면 법을 위반이 되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